

## 국문초록

『발룬 까난 *Balún Canán*』은 로사리오 까스떼야노스 (Rosario Castellanos)의 첫 소설로서 네오인디오헤니스모 문학(neoindigenismo)으로 분류된다. 라틴아메리카 인디오 문학은 인디오 목소리의 진정한 재현과 타자의 시각에 대한 극복을 추구하며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의 회복은 결과적으로 네오인디오헤니스모 문학을 형성하는 토양이 된다.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회복하고자하는 인디오 소설의 발전 동력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전해진 하위주체 연구의 부분적인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사회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 삭제되고 침묵을 강요당한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의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인디오소설로서 명명되어왔던 『발룬 까난』은 90년대를 기점으로 하위주체, 특히 인디오 하위주체의 재현이란 측면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평들은 주변부에 목소리를 주고자하는 시도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구체적인 재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인도하위주체 연구의 대표자 라나지트 구하와 가야트리 스피박의 이론을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에 접목시킨 존 베벌리의 연구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침묵당한 인디오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작품에 어떤 전략들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인디오 하위주체에 대한 문학작품으로서 『발룬 까난』을 고찰한다.

『발룬 까난』은 인디오 인물만큼이나 라디오 인물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며 다양한 하위주체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하위주체 인물들 간에 분명한 계층과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는 서발턴이 통일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일정한 본질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차이’ 또는 ‘공제’를 드러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설명된다.

소설의 첫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서 나나는 인디오 공동체의 기억을 전달하는 발화자이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화자 소녀는 나나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디오 하위주체의 목소리는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인식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소녀와 나나의 목소리를 통해 두 번 굴절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두 번째 장을 전개하는 전지적 화자 또한 인디오 세계의 중개자이자 대화자로서 기능하지만,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개입’을 통해 주변부의 목소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

『발룬 까난』은 작품의 세 장에 모두 마야 전통 텍스트들을 제사(epígrafe)로 사용하므로 인디오 하위주체 담론을 구비언어 뿐 아니라 문자언어를 통해서도 전개한다. 그러나 모든 제사가 스페인어로 번역된 형태라는 점과 이미 하나의 ‘문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인디오 담론이라는 점에서 목소리의 투명성과 진정성에 대한 문제는 다시 제기된다. 더불어 라디노에 대항한 인디오의 투쟁을 문서화하는 과정은 결국 지배 계층의 논리에 포섭되는 또 다른 문서화라는 한계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인디오 인물인 펠리페가 스페인어 습득을 통해 비로소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도 헤게모니를 지닌 언어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인디오 하위주체의 재현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요어: 로사리오 까스페야노스, 인디헤니스모, 하위주체, 존 베벌리, 치아파스, 증언소설

학 번: 2009-20036